

## 미국, 장기요양보험<sup>1)</sup> 부족 현상과 하이브리드 생명-장기요양보험

정수진 연구원

### 요약

미국의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요양 수요의 증가와 재택 요양과 같은 특정 서비스 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민간 장기요양보험은 1970년대부터 판매되어 왔으나, 보험가입자들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급감하자,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회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함.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생명-장기요양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음

- 미국의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요양 수요의 증가와 재택 요양과 같은 특정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sup>1)</sup>
  - 미국 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노인과 장애인 등 요양 수요 증가와 재택 요양과 같은 특정 서비스 가격의 상승에 기인함
    - 연간 재택 의료 비용은 2030년까지 평균 7% 이상, 1인당 비용은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알츠하이머와 치매<sup>2)</sup>는 전체 요양원 입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2023년 67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sup>3)</sup>
  - 재택 요양 비용은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왔는데, 이는 보조원, 치료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따르면, 재택 요양 비용은 2029년까지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민간 장기요양보험은 1970년대부터 판매되어 왔으나, 보험가입자들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급감하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함<sup>4)</sup>
  - 1970년대부터 장기요양보험은 빈곤층과 장애인에게만 장기 요양 비용을 지급하는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 의존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선전되어 판매되어 옴
  -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가입자들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 수요에 대한 보험회사의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함

1) 본고에서 정의하는 '장기요양보험'은 민영 간병보험까지 포함함

1) Forbes(2023), "The U.S. Predicts Big Increases In Skilled Nursing And Long-Term Care Costs"

2)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이며, 치매 사례의 60~80%를 차지함

3) Verywellhealth(2024), "When Medicare Won't Pay for Nursing Home Care"

4) The New York Times(2023), "Why Long-Term Care Insurance Falls Short for So Many"

-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1950년 68.1세에서 2022년 77.2세까지 늘어났으며,<sup>5)</sup> 보험회사가 예측한 보험 해지율은 연간 약 4%였으나 실제 해지율은 약 1%로 예상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급감하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소비자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함
  - 미국 생명보험 그룹 피치(Fitch)의 이사 더그 베이커(Doug Baker)는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을 이용할 사람들의 수를 과소평가한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가장 위험한 보험 중 하나”라고 말함

○ 미국의 공공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움

-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요양원 간호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주 5일 이상 전문 간호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함<sup>6)</sup>
  - 의료 서비스 비용, 병실, 의료 용품 및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기 요양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함
- 메디케이드는 장기요양 비용을 지급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수혜 자격 요건이 매우 낮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sup>7)</sup>의 133% 이하여야 함<sup>8)</sup>
  - 메디케이드가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원의 입소 자격은 매우 까다로우며,<sup>9)</sup> 입소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와 컨설턴트에 수천 달러를 지불하기도 하며,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집을 팔거나 이혼을 고려하기도 함<sup>10)</sup>

○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생명-장기요양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음

- 하이브리드 생명-장기요양보험은 생명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결합된 연계 혜택 장기요양보험 상품(Linked-Benefit LTCI)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비용을 지급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sup>11)</sup>
  - 요양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상실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 일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 보험의 보험료는 고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금 또한 고정되어 있으며, 보험료가 일반 장기요양보험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음
  - 미국 장기요양보험협회가 발표한 2024년 장기요양보험 가격 지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시장이 하이브리드 보험에 집중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보험료가 작년보다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sup>12)</sup>

5)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6) Verywellhealth(2024), “When Medicare Won’t Pay for Nursing Home Care”

7) 미국의 보건복지부(HHS)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 기준으로, 메디케이드 등의 특정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며, 2024년 FPL은 15,060달러임

8) 메디케이드 및 CHIP 센터(<https://www.medicaid.gov/medicaid/eligibility/index.html>)

9) 메디케이드 신청일 직전 최대 5년 동안 이루어진 자산 이전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산을 증여했거나 공정 시장가 이하로 매각한 경우, 벌금이 계산됨

10) The New York Times(2023), “Why Long-Term Care Insurance Falls Short for So Many”

11) Businessinsider(2021), “Most americans will need assisted living or other care, and a hybrid insurance policy can help cover the cost”

12) AALTCI(2024), “Linked Benefit Long-Term Care Insurance Prices Drop Up to 27 percent